

비상경제장관회의  
22-2

#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

2022. 9. 8.

관계부처합동

## 순 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 배경 .....                    | 1  |
| II. '23년 복지에산 투자방향 .....          | 2  |
| III. '23년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 모습 ..... | 3  |
| IV. 4대 핵심과제(20개 중점사업) .....       | 5  |
| 1. 저소득층 .....                     | 5  |
| 2. 장애인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7  |
| 3. 취약 청년 .....                    | 9  |
| 4. 노인 · 아동 · 청소년 .....            | 10 |

# I. 추진 배경

## ① 고물가로 인한 서민·저소득층 생계부담 가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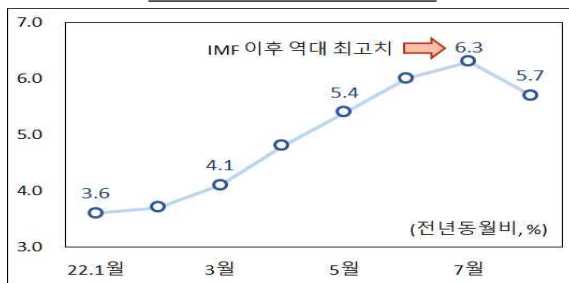
- 식료품·농축산물 가격 상승, 전기·가스 공공요금 인상 등 생활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

\* '22.8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 상승률(% , 전년동월비):

(식료품) 8.0 (주택·수도·전기) 6.2 (의류·신발) 3.3 (오락·문화) 3.3 (통신) 1.0 등

- 특히, 소득 대비 식비·주거비·교통비 등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

소비자 물가 상승률



\* 출처: '22.8월 소비자 물가동향 (통계청)

소득분위별 생계비 비중('22.2분기)

| (만원, %) | 월 가처분소득 | 생계비 비중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1분위     | 94.0    | 75.9   |
| 2분위     | 225.1   | 44.7   |
| 3분위     | 336.1   | 39.2   |
| 4분위     | 482.9   | 35.1   |
| 5분위     | 833.0   | 25.9   |

\* 출처: '22.2분기 가계동향 조사 (통계청)

## ② 사회적 약자 지원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

- 새정부 출범 후 총 9차례 크고 작은 민생·물가안정 대책 수립  
→ 민생경제 회복 및 생계부담 완화 총력

\* 2차 추경(5.29), '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(5.30)', '새정부 경제정책방향(6.16)', '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(6.19)', '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(7.8)' 등

-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,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여전히 존재

- 최근 저소득층·발달장애인·자립준비청년·반지하 가구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안타까운 사건들도 지속 발생

- ▶(저소득층) 현금화가 곤란한 주거용 재산 보유로 생계급여 탈락 후 생활고로 사망한 창신동 모자 사건 ('22.4월)
- ▶(장애인) 발달장애인 가족 8가구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 발생 ('22.3~8월)
- ▶(취약청년) 생활고 등으로 자립준비청년 2명 자살 ('22.8월)
- ▶(주거취약계층) 폭우로 인해 신림동 반지하 거주 일가족 3명 사망 ('22.8월)

## Ⅱ. '23년 복지예산 투자방향

### ① “서민·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”

- 스스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간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 부족
-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 취약계층의 피해 가중
- ⇒ 새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복지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선정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

### ② 사회적 약자를 위한 “두텁고 촘촘한 복지”

- 그간 복지예산의 급속한 확대에도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
- 양적 확대 측면에서만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맞춰질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소홀해질 우려
- ⇒ 새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생활 속 어려움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

### ③ 젊은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“지속가능한 복지”

-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, 세계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와 초저출산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악화
-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쉬운 부채 발행을 선택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
- ⇒ 새 정부는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 마련

### Ⅲ. '23년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 모습

#### ①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, 74.4조원 투자(+8.7조원, +13.2%)

-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중점 지원

⇒ ①저소득층, ②장애인, ③취약청년, ④노인·아동·청소년 4대 핵심 투자

- ▶(저소득층) 고물가로 인한 생계부담 완화와 주거재산 등에 따른 사각지대 보완 필요
- ▶(장애인) 여전히 상존하는 생활전반의 불편 해소와 보호자 돌봄부담 완화 필요
- ▶(취약청년) 자산격차, 좋은 일자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도약기반 마련 필요
- ▶(노인·아동·청소년)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, 기댈 곳 없는 취약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양육·보호 인프라 확충 필요

- 중점 투자한 4대 핵심과제 예산은 65.7→74.4조원으로 전년 대비 +8.7조원(+13.2%) 확대

#### ② 중앙정부 가용재원(9.0조원) 대부분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

- 내년 예산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\*인 점 감안시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(97%)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

\* 전년대비 +31조원 = 지방교부세·교부금 22조원 +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

-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환하면서도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 재구조화(24조원)를 병행해 4대 핵심과제에 적극 투자

- 지원수준을 대폭 인상\*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,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과제\*\*는 적극 반영

\* (사례) 기준중위소득(+5.47%), 에너지 바우처(+50% 수준) 역대 최대 인상('15년 시행 이후)

\*\* (사례) 청년도약계좌(306만명, 0.35조원),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(55억원)

◇ '23년 사회적 약자, 4대 핵심과제

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목표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따뜻한 나라, 모두가 행복한 사회</p>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<p>기본<br/>방향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<b>사회적 약자</b> 중심 복지<br/>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는 <b>두텁고 촘촘한 복지</b><br/>미래세대에게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는 <b>지속가능한 복지</b></p>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<p>4대<br/>핵심<br/>과제<br/>(20개<br/>중점<br/>사업)</p> | <table> <tr> <td data-bbox="373 658 667 954"> <p>저소득층<br/>(18.0→21.2조원)</p> </td><td data-bbox="699 658 1374 954"> <p>① <u>생계·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</u>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②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<br/>           ③ 교육급여 23%, 에너지바우처 50% 인상<br/>           ④ 주거급여 3.4만가구 추가 지원<br/>           ⑤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 상향</p> </td></tr> <tr> <td data-bbox="373 981 667 1276"> <p>장애인<br/>(5.1→5.8조원)</p> </td><td data-bbox="699 981 1374 1276"> <p>⑥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도입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⑦ '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 50% 인상<br/>           ⑧ 콜택시 운영비 '05년 이후 최초 국고 지원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⑨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14개소 신규 구축<br/>           ⑩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대상 확대</p> </td></tr> <tr> <td data-bbox="373 1303 667 1662"> <p>취약청년<br/>(23.4→24.1조원)</p> </td><td data-bbox="699 1303 1374 1662"> <p>⑪ 청년도약계좌(306만명) 도입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⑫ 청년주택 5.4만호, 전세보호 20만가구 지원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⑬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신설(최대 300만원)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⑭ 첨단분야 직업훈련 및 일경험 확대<br/>           ⑮ 병봉급(월 67.6→100만원) 인상<br/>           * 사회진출지원금 포함시 월 82→130만원<br/>           ('25년 월 205만원 달성)</p> </td></tr> <tr> <td data-bbox="373 1688 667 2040"> <p>노인·아동·청소년<br/>(19.3→23.3조원)</p> </td><td data-bbox="699 1688 1374 2040"> <p>⑯ 기초연금 인상(월 30.8→32.2만원)<br/>           * 임기내 월 40만원 차질없이 달성<br/>           ⑰ 부모급여 도입(0세, 월 70만원)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* '24년 월 100만원 지급<br/>           ⑱ 학대피해아동 심터·전담의료기관 확충<br/>           ⑲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40만원 지원<br/>           ⑳ 위기청소년 긴급생활지원금(월 최대 65만원)</p> </td></tr> </table> | <p>저소득층<br/>(18.0→21.2조원)</p> | <p>① <u>생계·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</u>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②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<br/>           ③ 교육급여 23%, 에너지바우처 50% 인상<br/>           ④ 주거급여 3.4만가구 추가 지원<br/>           ⑤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 상향</p> | <p>장애인<br/>(5.1→5.8조원)</p> | <p>⑥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도입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⑦ '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 50% 인상<br/>           ⑧ 콜택시 운영비 '05년 이후 최초 국고 지원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⑨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14개소 신규 구축<br/>           ⑩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대상 확대</p> | <p>취약청년<br/>(23.4→24.1조원)</p> | <p>⑪ 청년도약계좌(306만명) 도입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⑫ 청년주택 5.4만호, 전세보호 20만가구 지원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⑬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신설(최대 300만원)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⑭ 첨단분야 직업훈련 및 일경험 확대<br/>           ⑮ 병봉급(월 67.6→100만원) 인상<br/>           * 사회진출지원금 포함시 월 82→130만원<br/>           ('25년 월 205만원 달성)</p> | <p>노인·아동·청소년<br/>(19.3→23.3조원)</p> | <p>⑯ 기초연금 인상(월 30.8→32.2만원)<br/>           * 임기내 월 40만원 차질없이 달성<br/>           ⑰ 부모급여 도입(0세, 월 70만원)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* '24년 월 100만원 지급<br/>           ⑱ 학대피해아동 심터·전담의료기관 확충<br/>           ⑲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40만원 지원<br/>           ⑳ 위기청소년 긴급생활지원금(월 최대 65만원)</p> |
| <p>저소득층<br/>(18.0→21.2조원)</p>                   | <p>① <u>생계·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</u>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②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<br/>           ③ 교육급여 23%, 에너지바우처 50% 인상<br/>           ④ 주거급여 3.4만가구 추가 지원<br/>           ⑤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 상향</p>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<p>장애인<br/>(5.1→5.8조원)</p>                      | <p>⑥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도입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⑦ '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 50% 인상<br/>           ⑧ 콜택시 운영비 '05년 이후 최초 국고 지원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⑨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14개소 신규 구축<br/>           ⑩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대상 확대</p>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<p>취약청년<br/>(23.4→24.1조원)</p>                   | <p>⑪ 청년도약계좌(306만명) 도입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⑫ 청년주택 5.4만호, 전세보호 20만가구 지원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⑬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신설(최대 300만원)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⑭ 첨단분야 직업훈련 및 일경험 확대<br/>           ⑮ 병봉급(월 67.6→100만원) 인상<br/>           * 사회진출지원금 포함시 월 82→130만원<br/>           ('25년 월 205만원 달성)</p>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<p>노인·아동·청소년<br/>(19.3→23.3조원)</p>              | <p>⑯ 기초연금 인상(월 30.8→32.2만원)<br/>           * 임기내 월 40만원 차질없이 달성<br/>           ⑰ 부모급여 도입(0세, 월 70만원) <sup>신규</sup><br/>           * '24년 월 100만원 지급<br/>           ⑱ 학대피해아동 심터·전담의료기관 확충<br/>           ⑲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40만원 지원<br/>           ⑳ 위기청소년 긴급생활지원금(월 최대 65만원)</p>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
## Ⅳ. 4대 핵심과제 (20개 중점사업)

1

**저소득층: 18.0→21.2조원(368만명)**

◇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촘촘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, 주거 취약계층, 한부모·다문화 가정 등 맞춤형 지원 확대

### ① 탈락 위기에 놓인 4.8만가구, 재산기준 완화로 보호(+0.2조원)

- 공시가격 인상\* 등에 따른 수급탈락 방지\*\*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생계·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(+4.8만가구)

\* 인상률(공동주택 %): ('21) 19.05, ('22) 17.2 \*\* 생계급여 수급자 중 13.2만가구 자가보유('21년)

#### [현행 재산기준과 개선안]

(백만원)

| 현행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개선   |      |            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구분  | 생계급여 |              | 의료급여 |             | 구분   | 기본공제 | 주거재산<br>한도액 |
|     | 기본공제 | 주거재산<br>한도액* | 기본공제 | 주거재산<br>한도액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대도시 | 69   | 120          | 54   | 100         | 서울   | 99   | 172         |
| 중소  | 42   | 90           | 34   | 68          | 경기   | 80   | 151         |
| 농어촌 | 35   | 52           | 29   | 38          | 광역시중 | 77   | 146         |
|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기타   | 53   | 112         |

\* 월 소득환산율 1.04%를 적용하는 한도액, 초과분은 일반재산 월 소득 환산율 4.17% 적용

### ② 역대 최대 수준(+5.47%, 4인) 기준중위소득 인상(+0.6조원)

- (생계급여)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\*(+5.47%, 4인가구) 하여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 상향(154→162만원, 4인)

\* 1인 가구(생계급여 수급자의 80%)는 가중치 상향으로 전년대비 6.84% 인상

- (긴급복지) 실직·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月 154→162만원(4인가구)으로 인상

### ③ 교육급여 23%, 에너지바우처 50% 인상

- (교육급여)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을 +23.3% 인상\*

\* 초등 33.1→41.5만원, 중등 46.6→58.9만원, 고등 55.4→65.4만원

- (에너지바우처) 냉난방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사업시행 후 역대 최대인 +50% 수준 인상(연간 12.7→18.5만원)

- (재난적의료비) 가구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사업 지원요건 완화\* (+0.5만명)

\* (의료비기준) 연소득 15→10% 초과, (재산기준) 5.4→7억원, (한도) 3→5천만원

- (자활근로) 월 지원임금을 금년 하반기부터 3% 조기 인상 지원\*

\* 월 지원단가(시장진입형): ('21) 113.9 → ('22. 上.) 117.3 → ('22. 下. 이후) 120.8만원

#### ④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3.4만가구 추가지원

- (주거급여)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 46→47%로 완화하여 3.4만가구 추가로 지원 (중위 50% 목표로 단계적 상향 추진)
- (주거상향지원) 쪽방·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 지원을 위해 ①발굴 → ②이주 → ③안착의 “주거상향 지원 패키지” 도입
  - (발굴) 주거상향 지원 사업으로 이주수요 1만호 이상 발굴(100억원)
  - (이주) 정상거처 이주시 이사비·보증금\* 신규지원(1.5만가구, 0.3조원)
    - \* 이사비·생필품 지원 40만원, 이주보증금 무이자 용자 최대 5,000만원
  - (안착) 150여개 영구임대 단지(500세대 이상)에 주거복지사를 신규 배치하여 상담·사례관리를 통한 정착 지원(57억원)
- (전세사기 피해지원) 피해자 긴급저리대출(1.6억원 한도) 신규 지원

#### 〈참고: 주거사다리 복원 및 공공주택 질적 혁신〉

- 임대주택의 단순 확충에서 벗어나, ‘임대→분양’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주택(임대+분양)을 ‘80→100만호’로 확대
-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질적 혁신에 초점
  - \* (건설형) 평균면적 17.2평→20.2평, 역세권 비율 6%(판교)→60%(3기 신도시)
  - (매입·전세형) 호당 지원액 1천~3천만원 확대(예: 신혼부부형 1.7→2억원)

#### ⑤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 상향(+3.8만명, +0.1조원)

- (한부모가정) 한부모·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상향\*하여 3.8만명(22.1→25.9만명)에게 양육비 추가 지원
  - \* (한부모, 月 20만원) 중위 52→60%, (청소년 한부모, 月 35만원) 중위 60→65%
- (다문화가정) 학령기 자녀에게 심리·진로상담(78→113개소) 및 학습지원(90→138개소)을 제공하는 가족센터 확대



◇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**돌봄, 소득·고용, 건강생활, 교육·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**

## ⑥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신규 도입

- (긴급돌봄) 보호자 유고·부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(7일 내외)으로 24시간 긴급돌봄 제공\*(신규, 40개소)
  - \* 장애인복지관(+그룹홈) 등을 통해 낮시간 돌봄(주간)·주거지원(야간) 연계 제공
- (주간활동)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\* 제공시간을 대폭 확대(월 125→154시간)하여 낮 8시간 돌봄을 국가가 온전히 보장
  - \* 2~3인 그룹을 구성하여 낮시간 의미있는 활동(독서, 산책, 체육·음악·미술 등)을 지원
- (장애인 활동지원) 최중증 장애인 대상 가산급여 확대(4→6천명, 월 30→45만원),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도 활동지원 대상 포함
- (양육지원) 중증 장애아동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돌보미의 돌봄(아동보호·학습·놀이활동 등) 지원시간 확대(월 70→80시간)
- (자립지원)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\*을 17개 시·도로 확대(대상자 200→400명)하고, 추가 활동지원시간 확대(월 60→80시간)
  - \* 지역사회 자립 희망 장애인 대상 주거·돌봄·의료 등 통합서비스 지원('22~'24년)

## ⑦ '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 50% 인상(월 6만원)

- (소득보전) '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을 인상(월 4→6만원)하고,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상향(월 30.8→32.2만원)
- (고용지원)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표준사업장\* 확대(90→120개소) 및 고용장려금(월 30~80→35~90만원) 인상으로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
  - \* 장애인 다수 고용,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, 편의시설 구비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
- (직업재활) 근로취약 장애인 대상 직접일자리(2.8→3만개) 확대, 4차산업 등 新직무에 적합한 디지털 맞춤형훈련센터 확충(3→6개소)

## 8 장애인콜택시 운영비('05년 지방이양) 최초 국고 지원

- (이동지원센터)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\* 운영비 지원(신규, 238억원) 및 저상버스 도입 확대(2.3→4.3천대)

\* '05년 지방이양된 사업이나 교통약자법 개정 취지를 존중하여 보조금 지원

- (출퇴근비용) 중위 50% 이하 중증장애인은 모두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이 되도록 지원기준 완화\*(+1.2만명)

\* (현행)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(0.3만명) → (개편) 중위 50% 이하 중증장애인(1.5만명)

## 9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14개 신규 구축

- (건강생활)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신규 구축(14개), 권역구강진료센터 확충(15→16개소) 등 환자 특성을 감안한 의료인프라 확대

- (조기개입) 발달장애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(건보 하위 70→80%), 거점병원·행동발달증진센터\* 확충(10→12개소)

\* 발달장애인의 체계적 의료지원과 자·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병원 지정

- (치료) 장애아동의 기능향상·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 서비스\* 지원인원 확대(6.9→7.9만명) 및 단가 인상(월 22→25만원)

\* 18세 미만 장애아동(6세 미만 장애의심아동 포함) 대상 언어·미술·운동발달 등 재활 지원

- (부모·가족 지원) 발달장애인 가족관계 개선 및 심리·정서 지원을 위해 부모상담·교육, 가족휴식 지원인원 확대(2.5→3.0만명)

\* 보호자 대상 심리·정서 상담, 가족 대상 휴식·여가, 자조모임 및 전문교육 제공

## 10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대상 대폭 확대(15→53개)

- (평생교육)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'장애인 평생 학습도시\*' 지원대상 확대(15→53개) 및 지원기간 연장(1→3년)

\*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(장애인 자립지원 교육 등) 개발 및 운영 지원

- (문화·체육) 장애예술인 전용 전시장(신규) 및 예술활동 지원\*,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(1.5→2.2만대), 스포츠강좌 이용권(1→1.4만명) 확대

\* 신기술 활용 예술작품 창작지원, 장애예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

## 3

## 취약청년: 23.4→24.1조원(602만명)

◇ 청년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“자산형성·주거·일자리”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에게 도약 기회를 제공

## 11 청년 306만명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규 도입

- (청년도약계좌)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‘청년도약계좌’\* 도입(306만명)  
\* 가구 중위 180% 이하, 만기 5년, 청년 月 40~70만원 + 정부매칭 최대 6%
- (장병) 전역시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1,290만원 수령\* 지원  
\* 정부 매칭비율 상향: 본인 750만원 + 정부 250→540만원

## 12 청년주택 5.4만호, 전세보호 20만가구 신규 지원

- (청년주택)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진입 장벽을 낮춘\*  
청년주택(청년원가 + 역세권 첫집) 공공 공급 재정지원 착수(신규 5.4만호)  
\* 시세 70% 이하 공급 + 매각 차익 70% 귀속 → 내집마련 + 자산형성 뒷받침
- (전세보호)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규 지원(20만 가구)

## 13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신설(최대 300만원)

- (구직단념청년) 구직의욕 고취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\*을 맞춤형 제공(5개월, 200시간)하고, 청년도약준비금(최대 300만원) 신규 지급(+0.5만명)  
\* (구직촉진) 자신감 회복 및 진로탐색 → (고용지원) 취업역량 강화, 직무체험
- (대학생)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재학 단계부터 진로탐색·직무훈련·취업컨설팅을 제공하는 청년도약보장패키지 신규 도입(3만명)

## 14 첨단분야 직업훈련 및 일경험 확대(+1.8만명)

-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(2.8→3.6만명) 및 구직청년 일경험(1→2만명) 지원인원 대폭 확대

## 15 병 봉급 100만원 지원(병장기준, 사회진출지원금 포함시 130만원)

- 병 봉급(사회진출지원금 포함) 82→130만원으로 인상(~'25년 205만원)  
\* 병 봉급(병장기준) : ('22) 68 → ('23) 100 → ('24) 125 → ('25) 150만원  
사회진출지원금 : ('22) 14 → ('23) 30 → ('24) 40 → ('25) 55만원

◇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·아동·청소년이 **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**  
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**생애** **수** 단계에 걸쳐 **촘촘하고 세심하게** 지원

#### 16 기초연금 인상(월 32.2만원, 665만명)

- (소득보전)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상향(월 30.8→32.2만원)하고,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하여 월 40만원 차질없이 인상
- (고용지원) 양질의 민간·사회서비스형 일자리(23.7→27.5만명) 및 고령자 고용장려금\*(0.9→6.1만명) 확대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

\*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기업에 인당 월 10~30만원 지원(2년간)

〈참고: 양질의 민간일자리 중심 노인일자리 확대(85.4→88.3만명)〉

- (공공형)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층 진입 등 감안, 일부 조정(△6.1만명)  
※ 취업이 힘든 고령자는 공공형 우선 제공, 베이비부머 세대는 민간·사회서비스형 유도
  - (민간·사회서비스형)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(+3.8만명)
- ⇒ 고용장려금(+5.2만명) 포함, 전체 노인일자리 지원은 2.9만명 증가(85.4→88.3만명)

- (돌봄)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돌봄서비스(50→55만명)와 응급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(20→30만가구) 지원대상 확대

#### 17 만 0~1세 영아 부모급여 신규도입('23년 월 70 → '24년 100만원)

- (출산초기 영아) 만 0~1세 영아 양육가구에 월 35~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\*를 도입하고, '24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

\* (만 0세) '22년 월 30(영아수당) → '23년 70(부모급여 도입) → '24년 100만원  
(만 1세) '22년 월 30(영아수당) → '23년 35(부모급여 도입) → '24년 50만원

- (취약가구 아동) 취약가구\*에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\*\* 지원 확대

\*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수급가구, 중위소득 80% 이하 장애인 등

\*\* (기저귀) 6.4→8.0만원/월, (조제분유) 8.6→10.0만원/월

- (희귀질환아동)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중위 120→130%로 확대(0.4→0.6만명)

## 18 학대피해아동 쉼터·전담의료기관 대폭 확충

- (학대피해아동) 긴급·일시보호 시설인 쉼터(141→177개소)·전담의료기관(8→17개소) 대폭 확충 및 가정방문 등 치유·회복지원 확대\*

\* 아동보호전문기관 95→105개소, 방문형 가정회복 대상 1,000→1,200가정

- (보호대상아동) 공동생활형 그룹홈(517→527개소)을 확충하고, 가정위탁 아동에 후견인 선임비용(1인당 약 100만원) 신규 지원

## 19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40만원 지원

- (소득 지원)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30→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(1.0→1.2만명)
- (의료비 지원)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건강권 보장(+0.8만명)
- (정서적 지원) 사례관리\* 확대(1,470→2,000명), 자조모임 활성화(120명), 고립·은둔청년 전문 사례관리(300명) 및 보호연장아동\*\* 지원 신설

\* 보호종료 5년내 청년에게 주거·생활·취업·건강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

\*\* 보호연장 가능기간 확대(18→24세, '22.6)에 따라 자립준비전담기관에서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사전 자립준비 컨설팅 등 서비스도 신규 제공(+0.1만명)

## 20 위기청소년 긴급 생활지원금 월 최대 65만원 지원

- (위기청소년) 소득·주거 불안 등을 겪는 위기청소년(0.2만명) 대상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을 월 최대 55→65만원 인상
- (가족돌봄청년) 질병, 장애 등을 가진 가족원을 돌보는 청년에 대한 가사서비스 등 신설으로 청년 부담완화 및 자립 지원

\* 가족돌봄청년·중장년 1인가구맞벌이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사업 신설(3만명)

◇ 4대 핵심과제로 2,100만명(일부 중복포함)에 74.4조원 투자

- ① 저소득층 368만명(21.2조원) ② 장애인 237만명(5.8조원)
- ③ 취약청년 602만명(24.1조원) ④ 노인·아동·청소년 894만명(23.3조원)

### 〈 '23년에 달라지는 모습 〉

| 핵심과제          | 주요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2년                 | '23년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저소득층          | 생계·의료급여<br>재산기준(기본공제, 서울)          | 생계 69백만원<br>의료 54백만원 | 생계·의료 99백만원  |
|               | 생계급여 최대급여액(4인)                     | 월 154만원              | 월 162만원      |
|               | 교육급여<br>교육활동지원비(고등)                | 55.4만원               | 65.4만원       |
|               |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위 46%               | 중위 47%       |
|               | 한부모 양육비 지원기준                       | 중위 52%               | 중위 60%       |
| 장애인           |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| 신규 40개소      |
|               | 장애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월 4만원                | 월 6만원        |
|               |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| 운영비 신규 지원    |
|               | 전담 음압병상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| 신규 14개소      |
|               |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                        | 15개                  | 53개          |
| 취약<br>청년      | 청년도약계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| 306만명        |
|               | 청년주택 공급<br>(청년월가+역세권 첫집)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| 5.4만호        |
|               | 청년도약 준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| 최대 300만원     |
|               | 첨단산업 훈련과정<br>(K-HighTech Training) | 2.8만명                | 3.6만명        |
|               | 병 봉급<br>(사회진출지원금포함)                | 82만원                 | 130만원        |
| 노인·아동·<br>청소년 |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| 월 30.8만원             | 월 32.2만원     |
|               | 부모급여 (0세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월 30만원<br>(영아수당)     | 월 70만원       |
|               |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| 월 30만원               | 월 40만원       |
|               |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| 연평균 15만원     |
|               | 위기청소년<br>긴급생활지원금                   | 월 최대<br>55만원         | 월 최대<br>65만원 |